



SARANG

시론 02

도시와 건축에서 여유

신년사 03

신년사

광주 지역 뉴스 04-05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광주 남구 진월동 행정복지센터 물품 전달식
광주건축사회,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업무협약 체결식
광주건축사회, 2025년 을사년 사무식 개최

전남 지역 뉴스 06-07

전라남도건축사회, 2024 송년문화제 개최
2024년도 순천지역건축사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개최
전라남도건축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참배

전북 지역 뉴스 08-09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전북자치도에 '성금 1000만원' 기부
전주지역건축사회, 이웃사랑 성금 500만원 전달
전북 익산지역건축사회,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이불 50채 전달식

건축사 인터뷰 10

좋은 건축물, 더 나은 설계를 위해 늘 꿈꾸는 건축사 _ 소상용 건축사(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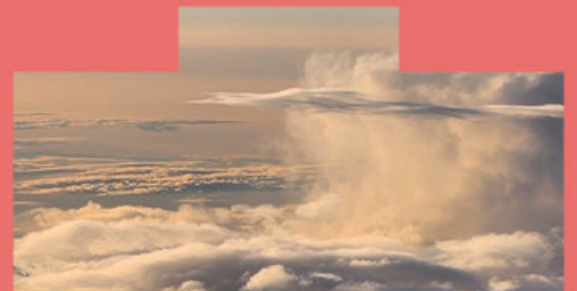
설계경기 11

소라면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사업 건축설계 공모

독자광장 12

신년회호

한 장의 사진 _ 노을빛 구름위 내리는 비
책 소개 _ 서울은 건축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1.182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도시와 건축에서 여유



문창호 논설위원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대표
mchangho55@gmail.com

- 1978
서울대 건축과 졸업
- 1980
동 대학원 공학석사
- 1989
동 대학원 공학박사
- 1989-1995
순천대학교 건축과 교수
- 1995-2021
군산대학교 건축과 교수
- 2021-현재
군산대학교 건축과 명예교수
- 2008-2010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
- 2009-현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부회장
- 2014-2016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2016-2022
한국건축가협회 전북지회장
- 2023-현재
대한체육회 공공건축심의위원장
- 2024-현재
전북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부위원장
- 2013
건축의 날 대통령 "표창"
- 2003
완석루(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14
난재루(전북건축문화상 우수상)
- 2019
안향재(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23
전북예총 하림예술상 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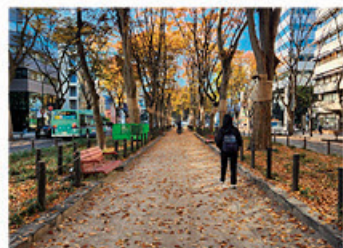
건축심의를 하다 보면 허용 건폐율/용적률의 99.9%까지 설계된 경우를 본다. 과연 제대로 시공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실제로는 측량의 오차나 시공 시 휴먼 에러(human error)로 인하여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일에서도 허용오차를 위한 여유를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도 도시와 건축에서 상당한 여유를 갖도록 계획하고 구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도시에서의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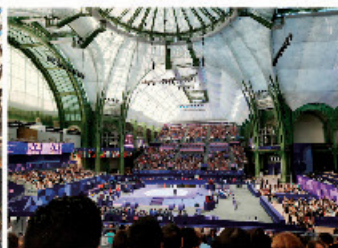
중소도시의 구시가지가 공동화되면서 초등학교나 공공기관이 폐쇄되거나 외곽의 주거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자리에 고밀도/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도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성 논리만으로 환경을 망치는 개발보다는 공원이자 밀도가 낮은 공공건축물 건립 등으로 도시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이나 일본의 도심에 가보면 가끔 마주치는 도로 한가운데에 공원이 있다. 애초에 큰 폭으로 도로 공간이 계획되어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대신하여 보행로와 휴식 공간이 함께 있는 형태이다. 추후 교통량에 따라서 차도를 넓히거나 휴식 공간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공간은 도심 속 보행과 작은 휴게공간으로 이용된다. 일종의 휴식 섬 같은 여유 공간으로 새로 조성하는 도시나 단지에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을 여행해 보면,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에서도 질서 있는 주차장은 인상적이다. 도심이건 주택지이건 구획되지 않은 곳에 주차된 차를 보기 힘들다. 오래전 파리에서 승용차로 건축 답사하던 중, 유명 건축물을 잠시만 보고 나오려고 대중 주차했다가 단속스티커를 발부받은 적이 있다. 좀 억울하기도 했지만, 철저한 주차관리에 놀라기도 했다. 반면, 우리 동네 주차 질서를 보면 길길이 멀다. 현재는 획기적인 대중교통의 개선이 없는 한 승용차 이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사무소, 병원이나 식당 등에 갈 때 늘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애를 먹는다. 건물의 실제 이용자 수를 추산하여 여유 있는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식이나 법규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센다이 도로, 일본



그랑팔레, 프랑스

건축에서의 여유

건축계획에 관여하다 보면 공유면적비라는 것이 있다. 전체면적에서 공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일 것인데, 공유면적은 통행 공간에 기계실, 화장실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애매하다. 많은 경우 30% 정도의 작은 공유면적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설계자들이 협소한 면적으로 인하여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답답한 건물로 설계되어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나는 보다 분명한 총/순면적(gross/net)비를 쓰자고 주장한다. 순면적은 건축에서 모든 기능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고, 총면적은 순면적에 모든 통행(circulation) 면적을 더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통행 면적은 복도, 홀, 엘리베이터 공간, 각종 설비 샤프트 등이 차지하는 면적만으로 구성된다. 30% 공유면적비를 총/순

면적비로 환산하면 1.3-1.4 정도 된다. 경험적으로 건축계획에서 총/순면적비를 1.5-1.6 정도로 하여 통행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 주면, 여러모로 평면적으로 여유 있고 창의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유 있는 총/순면적비 확보는 기획 단계부터 꼭 필요한 일이다.

지난해 여름 파리올림픽에서 경기장으로 이용되었던 그랑팔레에서 태권도 경기를 참관한 적이 있다. 높은 천정고에 의한 풍성한 공간감이 큰 감명을 받았다. 1900년에 만국박람회를 위하여 건립된 철골 구조 건축물로 현재도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내부에 가설구조물로 관람석과 공조 설비 공간을 만들어서 역동적인 공간의 체육관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듯 수직적인 여유가 있으면 변화에 대응하면서 오랫동안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평면적인 면적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는 건물의 용적(volume)도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즉 용적에 따른 사업비의 고려도 있어야만 건축물이 수직적으로도 풍부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 창출될 수 있다.

공공건물 건축 과정에서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비로 생각된다. 설계 공모 시 멋진 건물디자인이 나중에 구현된 것을 보면 왜소하고 초라한 건물로 변해있다. 대부분 잘못 예측된 공사비 때문에 계획 때보다 면적을 줄이고 외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일 것이다. 즉, 기획 단계에서 적어도 3년-5년 이후에 실현될 건축에 대한 면적도 타이트하고 공사비를 과소하게 산정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도 수용할 정도의 여유 있는 총면적과 공사비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제/경쟁력 등 지표에서 10위 권을 다투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도시나 건축에서 여유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은 여유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도시와 건축 측면에서 여유를 갖는 것이 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일 것이다.

도시에서 구시가지의 한가하고 여유로운 공간 조성, 한가운데에 보행 및 휴게공간을 확보한 여유 있는 도로 계획, 수요에 따른 질서 있고 여유로운 주차 공간 실현, 건축에서 여유 있는 총/순면적비 계획과 풍부한 내부 공간을 위한 여유 있는 총고(용적) 계획, 여유로운 건축예산의 수립 등 도시와 건축이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기를 기대한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해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라00144
간월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강필서 회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존경하는 건축문화사랑 독자 여러분!

올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정보 소비 습관이 디지털화와 편의성 증진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발간하오니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광주, 전남, 전북지역 건축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 회장 / 전라남도건축사회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축업계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문 건축사로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회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성열 회장 /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희망찬 새해를 맞아 모든 건축사 회원님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건축문화발전과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며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허만수 편집인 /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며, 공간을 창조하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을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도전과 성장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임현정 부편집인 / 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25년, 희망을 짓는 새해를 맞이하며

건축문화사랑신문과 함께해주시는 여러분,

침체된 건축 환경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희망을 짓고, 미래를 설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마음을 잇고, 지친 삶에 쉼과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2025년에도 건축문화사랑신문은 건축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그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희망과 도전으로 빛나는 한 해 되세요!



육광돈 부편집인 / 건축사사무소 채담

우리 모두가 맞이한 2025년은 어느 해보다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그러함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서로를 위한 소통과 배려, 건축에 대한 열정과 집중으로 잘 이겨내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건축문화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기섭 부편집인 / (주)건축사사무소온도

낯은 해를 보내며 뒤를 돌아보다 문득 매 순간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과 앞으로 같은 길을 걷게 될 미래 건축인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건축문화사랑'은 새해에도 우리 건축인들의 도전과 성취,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행복하세요.



윤미순 편집위원 / 미 건축사사무소 (전북)

2024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해동안 건축문화사랑 신문을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이렇게 함께 맞이할 수 있어 감사드리며, 건축문화사랑 신문을 통해 건축의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김미리 편집위원 / 미리미터 건축사사무소 (광주)

2025년 올사년 푸른 뱀의 해, 건축의 앞날도 푸르길 기대해 봅니다.

올해부터 '건축문화사랑' 신문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반영하여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선화 편집위원 / 아름다운 건축사사무소 (전남)

항상 설렘과 기대감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더해가며 건축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곳곳이 잘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도 꾸준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담빛리주택

고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광주 서구 마북로 20 / Tel. 062-385-5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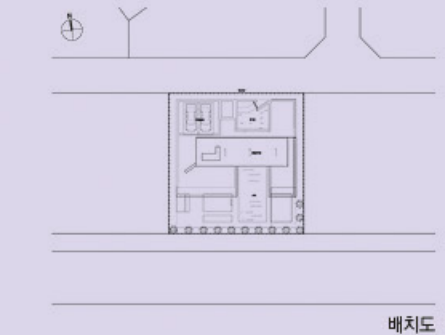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담빛리 203번지 / 대지면적 : 552.9㎡ / 건축면적 : 181.84㎡ / 연면적 : 170.87㎡
건폐율 : 31.19% / 용적률 : 30.90%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노출콘크리트, 화강석

담빛리에 새로 지어진 담빛리주택은 자연과 도시적인 공간의 느낌으로 모두 접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를 원한다.

주어진 대지는 정사각형의 형태로 거실주방, 서재, 각방의 배치는 보이는 풍경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위치한다.

모든 공간은 공간과 복도 계단과 연결시키고 머무르는 공간은 다양한 마당과의 연결을 계획하고 외부로 나갈 수도 있는 문을 만든다.

흙과 나무 식물 등을 가꾸면서 아파트 공간에서 접하지 못하는 마당 공간에서의 생활의 즐거움을 많이 느꼈으면 한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광주 남구 진월동 행정복지센터 물품 전달식
쌀 400kg, 라면 48상자... 진월동 돌봄이웃 40가정에 전달 예정



기 저소득층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내고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쌀 400kg과 라면 48상자를 전달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답사동호회(회장 이영문)는 지난 12월 18일 광주 남구 진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사랑 물품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문희 동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답사동호회원 8명이 참석했다. 전달된 물품은 동절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회원들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이번 이웃사랑 나눔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희 동장은 "전달해 주신 물품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활동을 펼쳐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업무협약 체결식

지난 12월 18일 광주광역시청 16층에서...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협약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문용)가 광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월 18일 광주광역시청 16층 안전소방본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해 광주 소방안전본부 김문용 본부장, 방호예방과 김영일 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방관서 건축허가 동의 관련 건축방재분야 자문, 소방공무원 교육 요청 시 강의 지원, 행사 시 소방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지원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외에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을 위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생

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으로 시민의 안전과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소방안전본부 김문용 본부장도 "광주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물의 피난, 방화시설 안전성을 강화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2025년 을사년 시무식 개최

지난 1월 2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지난 1월 2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회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사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국가애도기간임을 감안하여 경건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회원 상호 간의 신년인사, 2025년 주요

업무보고, 회원수첩 및 설계의도구현 포스터 배부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강필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경기침체가 예상되지만 회원복지증진과 건축사 업무지원에 힘쓰며, 회원님들의 권익보호와 뜻을 대변하는 광주건축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2대 회장에 길종원 교수 선출

임기동안 지역건축가 양성, 도시문화발전 위상을 높일 것...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달 16일 역전커뮤니티센터 2층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선출의 건으로 조선이공대학교 건축과 길종원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천해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길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 지역건축가 양성, 건축도시문화의 발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전남지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건축계의 대표적인 행사인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건축가 양성, 도시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2기 건축안전자문단 출범식' 개최

건축물 관련 안전관리 및 자문 예정...



(사진 = 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3일 무등홀에서 '제2기 건축안전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건축안전자문단은 건축공사장과 해체공사장의 안전 자문·점검, 자연재해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물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자문·대응 등 지역의 건축물 안

전관리를 책임지는 7개 분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자문단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1기 자문단 운영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2기 자문단 구성 보고, 안전모 전달식 순으로 진행했다.

2기 자문단은 건축구조 19명, 건축시공 22명, 건설안전 9명, 토질·기초 7명, 소방 9명, 건축사 5명, 품질관리 5명 등 7개 분야 총 7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27년 9월30일까지 총 3년간이며, 전문성을 갖춘 자문단의 역할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시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활동한 1기 자문단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기술 자문,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민·관 합동 무허가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 등의 활동을 했다.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신석균 교수, 고별강연회 개최

37년간 후학 양성과 지역 건축문화에 기여...



(사진 = 광주대학교 제공)

광주대학교에서 내년 2월 정년퇴임하는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신석균 교수를 기념하는 고별강연회를 지난 16일 학교 호심관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동료 교수진,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건축계 인사들과 가족 등 약 160여 명이 참석해 신 교수의 37년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신 교수는 '일상 속의 건축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가치를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했다. 신 교수는 또 자신의 건축관과 철학을 소개하며, 후학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 사고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직 중 신 교수와 함께한 동료 및 후배 교수들의 따뜻한 축사와 졸업생들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졌다. 재학생들도 교수의 헌신적인 지도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신석균 교수는 광주대 건축학전공에서 37년간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과 건축 연구에 헌신했다. 또 지역사회 건축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학과를 5년제 교육과정으로 전환해 건축학교육인증을 획득하고, 많은 제자들을 건축사로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광주 회원동정

• 전입

- 최환석 건축사 / 라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 광주 북구 서암대로274번길 9, 1층 103호
- 고수진 건축사 / 오브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경일로 144, 4층

• 변경(소재지)

- 김명호 건축사 / 건민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송정로 15번길 27, 603호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 광주 남구 백양로 163, 2층
- 정희성 건축사 / 이유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대남대로 431-3, 4층

• 부고

- 장영상 건축사 / 대한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4년 12월 22일(일)
- 최 윤 건축사 / 에스포유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5년 1월 9일(목)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의원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노화복초 다목적강당

정은미 건축사 / 드림 건축사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12, 302호 / Tel. 061-536-6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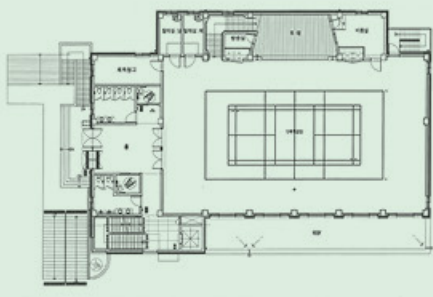
대지위치: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신암리 452-1번지 / 대지면적: 11,286㎡ / 건축면적(금회증축): 683.08㎡ / 연면적(금회증축): 996.46㎡
건폐율(금회증축): 6.05% / 용적률(금회증축): 8.82% / 규모: 지상 2층 /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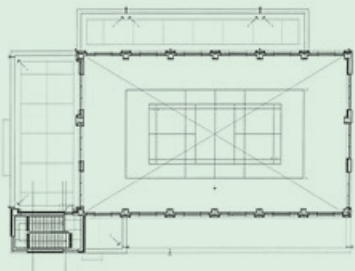
전남 완도군에 노화도라는 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다양한 환경과 날씨에도 자유롭게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다목적강당)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건립되어진 체육관이다. 정문을 거쳐 드넓은 운동장이 펼쳐지지만 기존 유치원동과 학교동, 기존 건물과 어우러지면서 이용객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로서, 기존 단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접근로와 필로티를 통해 출입함으로써 이용이 용이하게끔 설계되었다. 준공을 앞두고 마을주민들까지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오래도록 쓰임이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한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2층(상부) 평면도

전라남도건축사회, 2024 송년문화제 개최

관내 회원들이 함께 모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성장과 발전 계기



(사진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공)

이경일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축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님들의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이경일)는 지난달 12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컨벤션홀에서 회원들이 함께 모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는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2024 전남건축사회 송년문화제’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식공연을 시작으로 축사(본협회장, 도지사 등), 감사패 및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2024년도 순천지역건축사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개최

지난 12월 19일 순천 웨딩홀 봄날에서...



전남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달 19일 순천 웨딩홀 봄날에서 회원, 가족, 내외빈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3~2024 정운기 회장((주)고려적산 건축사사무소)의 이임식과 2024~2025년도 정재성 회장(건축사사무

소 프로세스)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사패 전달, 이·취임사, 축사를 가졌으며 이어서 송년회도 같이 진행했다. 지난 2년간 순천지역건축사회를 이끈 정운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화합으로 건축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정재성 회장은 “전임 회장과 회원 여러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참배

지난 2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이경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애도로 2025년 새해를 시작했다. 지난 2일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명

이 참여한 가운데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참담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사람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유가족의 충격과 슬픔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과 광양지역건축사회, ‘2025년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

매월 1회,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사진 =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시장 정인화)와 광양지역건축사회(회장 박동기)는 함께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는 지역의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배움의 장을 마련해 건축에 대한 어린이

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광양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선정해 매월 1회 운영할 계획이며,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모형 만들기 등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수 광양시 건축허가과장은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 건축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지역건축사회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후원금 전달 등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담양군 대전면 대치지구,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

재건축에 용이하게 규제 완화 혜택 제공...

전남 담양군은 대전면 대치지구가 ‘뉴빌리지 신규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빌라 등 저층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과 안전·편의시설 등 생활 기반을 공급해 아파트 수준의 주택공급과 정주환경을 제공하며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금 융자,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준다.

사업대상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인 대전면 대치리 일부 지역이며, 국도 24호선이 도시 외곽으로 확장된 후 대전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유동 인구수가 급감하고 대도시 인구 유출과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된 지역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250억원을 투입, 주택 정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보행 안전·생활안전 등 기반 시설 강화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물동정비지원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지역건축사회,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지역 내 60개소 모금해 마련...



여수지역건축사회는 최근 여수시에 희망2025나눔 캠페인 성금 653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여수지역건축사회 개업 건축사 60개소가 모금해 마련됐으며,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기탁돼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맞춤형 복

지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변형우 여수지역건축사회장은 “재해를 맞아 소외계층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정을 보내주신 여수건축사 회원에게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성금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에 ‘전남 신안경찰서’ 선정

1004개의 섬과 지형적 특징을 설계에 반영...



(사진 = 전남 신안경찰서 /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올해의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에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전남 신안경찰서’가 선정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유재산 건축상은 공공청사의 건축 품질을 향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건축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디자인과 편의성,

안전성 등을 종합평가해 그동안 총 90건을 우수건축물로 선정·시상해 왔다.

대상을 받은 신안경찰서는 전남 시·군에서 유일하게 관할경찰서가 없는 곳에 신축돼 지역 주민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특히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지형적 특징을 설계에 반영해 기존의 권위적인 경찰서의 이미지를 벗고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신흥민 건축사 / 청암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97

• 결혼

- 이완희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 / 자녀결혼 - 2024년 12월 14일(토)

• 부고

- 노상익 건축사 / 전일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4년 12월 4일(수)



반석기조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펄이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임대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보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6길 6
Tel. 063-272-3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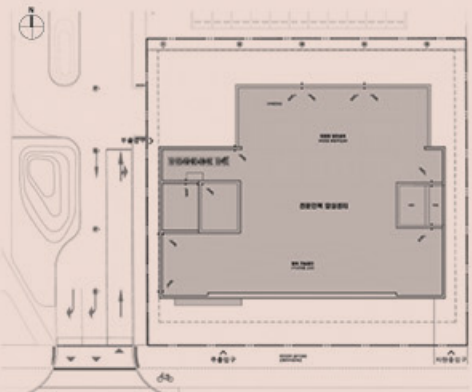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083번지 / 대지면적 : 1,654.30㎡ / 건축면적 : 943.14㎡ / 연면적 : 1,495.12㎡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세라믹패널, 고품 석버너구이, 로이복층유리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의 공급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환으로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가 구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새만금은 물론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기업수요 대응형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국내 신재생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새만금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평면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종합적 분석하여 가변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조닝계획과 외부 공간과 소통을 고려한 교육공간을 구현한다. 입면적으로는 일사조절 루버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고,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한 친환경 에너지센터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 단면적으로는 각종 실험장비를 고려한 합리적인 구조계획을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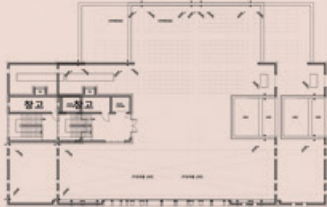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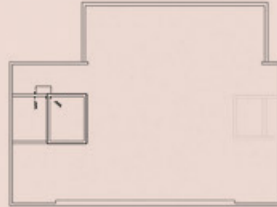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옥탑층 평면도



옥탑지붕층 평면도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전북자치도에 ‘성금 1000만원’ 기부

매년 다양한 기부활동 통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앞장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하는데 기여했다.

건축사회는 매년 연말 지역사회를 위한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오며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올해 마련된 기부금은 도내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성열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의 따뜻한 나눔 정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이웃사랑 성금 500만원 전달

도내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 예정...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는 지난달 23일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을 돕



기 위해 전주시에 이웃사랑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박광성 회장은 “유난히 어려워진 경제 한파 속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다소나마 따뜻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주지역 건축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건축문화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조성, 건축사의 권익증진과 친목 도모,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북 익산지역건축사회,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이불 50채 전달식

어렵고 힘든 장애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지역 건축사회(회장 안영목)는 지난달 30일 안영목 회장 외 소속 건축사 50명이 익산시 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하여 500만원 상당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추워진 한파 속에 어렵고 힘든 장애인 및

불우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익산지역건축사회 안영목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회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성이 함께 살아가는 익산 발전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지역건축사회는 재능 기부를 비롯해 익산사랑 장학금,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사랑의 연탄 나눔 등 해마다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건축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

도내 건축교육과정 운영하는 공업고등학교 6인에게 전달



(좌 = 전주공고 / 우 = 이리공고)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올해에도 장학사업으로 미래인재 육성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는 매년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재 육성을 위해 전북자치도 고등학교 중 건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주공업고등학교와 이리공업고등학교에서 추천받은 6명의 학생들에게 지난 12월 26일 협회에서 50만원씩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축인재 육성 장학사업 5년차를 맞는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서는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을 전북자치도에 전달하는 등 매년 도내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성열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건축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과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5회 전주시 예술상, 건축 부문 강미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예감) 수상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 전주시는 지난달 19일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열린 ‘제35회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예술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5개 부문 수상자 중 건축 부문에 강미현 건축사(예감 건축사사무소)가



(사진 = 전주시 제공)

수상했다.

강미현 건축사는 지역건축문화 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강미현 건축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라북도 주거 부문에서 주거문화상을 수상하며, 건축주의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한 ‘건축주 학교’는 전국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포괄하는 최초의 건축 강좌로, 건축주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건축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주시, 27년만에 고도지구 제도 정비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관리계획 변경 사항 고시...



(사진 = 전주시청)

전주시는 공원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를 27년 만에 전면 정비,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시는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공원 조망 훼손 방지와 도시 환경 조성 및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덕진공원

과 산성공원 등 8개 주요 공원 경계 200~300m 이내 총 15개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시는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여건이 제한되면서 27년이 경과된 현재 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 경관이 저하되고, 주거 환경 악화 및 장래 주거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조사와 상위 계획 검토, 조망 분석을 거쳐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효력이 상실된 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높이를 관리하는 중복지제 지역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중 5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전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정비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고도지구 개편을 통해 전체 해제되는 11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고도지구 제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심공원의 통경·조망권을 고려한 건축 배치 및 층수 계획을 수립토록 해놓았다.

이번 고시를 통해 전주지역 8개 공원 주변 15개 고도지구 중 11개 고도지구가 해제되고, 공원 조망이 양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완산공원과 기린공원, 산성공원 주변 4개 고도지구는 존치된다.

전북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김관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토마스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78, 3층
- 강재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해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남7길 5, 1층
- 강민성 건축사 / 신성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남7길 5, 1층
- 조은이 건축사 / 은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4, 2층
- 고인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톨못4길 19, 402호

• 변경(사무소명 및 소재지)

- 안호원 건축사 / (주)에이젠 건축사사무소 → (주)에이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4, 4층

• 결혼

- 김진이 건축사 / 다진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2024년 12월 15일(일)
- 김영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 / 아들 결혼 - 2024년 12월 21일(토)

• 부고

- 손윤희 건축사 / 휘경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4년 12월 05일(목)
- 최창현 건축사 / 청운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4년 12월 20일(금)
- 김정수 건축사 / 건영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4년 12월 27일(금)
- 정동언 건축사 / (유)원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4년 12월 28일(토)
- 민백기 건축사 / 민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2025년 1월 4일(토)

좋은 건축물, 더 나은 설계를 위해 늘 꿈꾸는 건축사

— 소아키 건축사사무소 소상용 건축사와의 만남



소상용 건축사(광주)

건축문화사랑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축학을 전공할 때부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마침 아버지께서 단독주택을 짓기로 하였고, 그 프로젝트를 계기로 사무소를 조금 일찍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집을 설계하고 건축물대장에 제 이름을 올리는 것이 큰 욕심이자 꿈이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이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이자 대학교 동기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건축 회의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설계를 고민하고 발전시키며, 좋은 건축물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개설한 지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2년 2월에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고생해 주는 동료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늘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선배 건축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설계 자료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큼니다.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상세도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찾거나 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계 상세도뿐만 아니라 시각화를 위한 텍스처나 재료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여, 이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건축사 모두에게 설계의 질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Q.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만약 디자인이나 설계도면이 구상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디자인을 할 때는 유명 건축물을 참고하거나, 산책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VR을 활용해 구글어스를 통해 세계 곳곳을 탐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VR은 생생한 체험과 스케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VR을 통해 건축을 배우는 것이 책에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건축물이나 건축가가 있으실까요?

주택과 숙박시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건축주의 의뢰를 받고도 설계를 미루다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기간에 설계를 완성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공감과 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부분 폭포를 전망으로 설계할 텐데, 라이트는 폭포 위에 집을 지으며 기존 틀을 과감하게 깬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건축에 한계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었고, 저도 그런 과감하고 창의적인 건축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는 어떻게 되실까요?

건축계는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좋은 건축물이 탄생하고, 그것을 보며 더 나은 설계를 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건축물이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건축계가 함께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성장에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여러사람에게 인정받는 건축사무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Q. 건축사 외에 다른 꿈이 있으셨나요?

졸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 건축설계 시장은 산업적인 규모로 볼 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플 개발이나 프로그래머 같은 분야로 전향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이 분야는 당시에도, 지금도 산업 규모가 크고 전망이 밝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 분야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있고 전공이 존재하는 이유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배워온 건축설계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건축설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설계업의 매력 중 하나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관계입니다.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동료애가 깊고, 그 따뜻함이 참 좋습니다. 서로에게 배울 점이 항상 있다는 사실은 즐거움을 줍니다.

앞선 선배님들 덕분에 건축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음을 느낍니다. 저 역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후배들에게 좋은 건축설계 문화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어가며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북구 카페 루브시 전경 및 실내



제주 주택 전경



광주 남구 조선피플(카페 및 한옥집)



전북 고창 백운카페 전경

소라면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사업 건축설계 공모

소라면 죽림지구 인구 급증으로 지역주민들의 각종 행정민원 처리 시 원거리의 소라면사무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죽림행정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며,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문화·복지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 및 건강 복지향상을 기대하고 도·농 간 교류를 촉진하여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청사 건립이 필요함. 이에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 추진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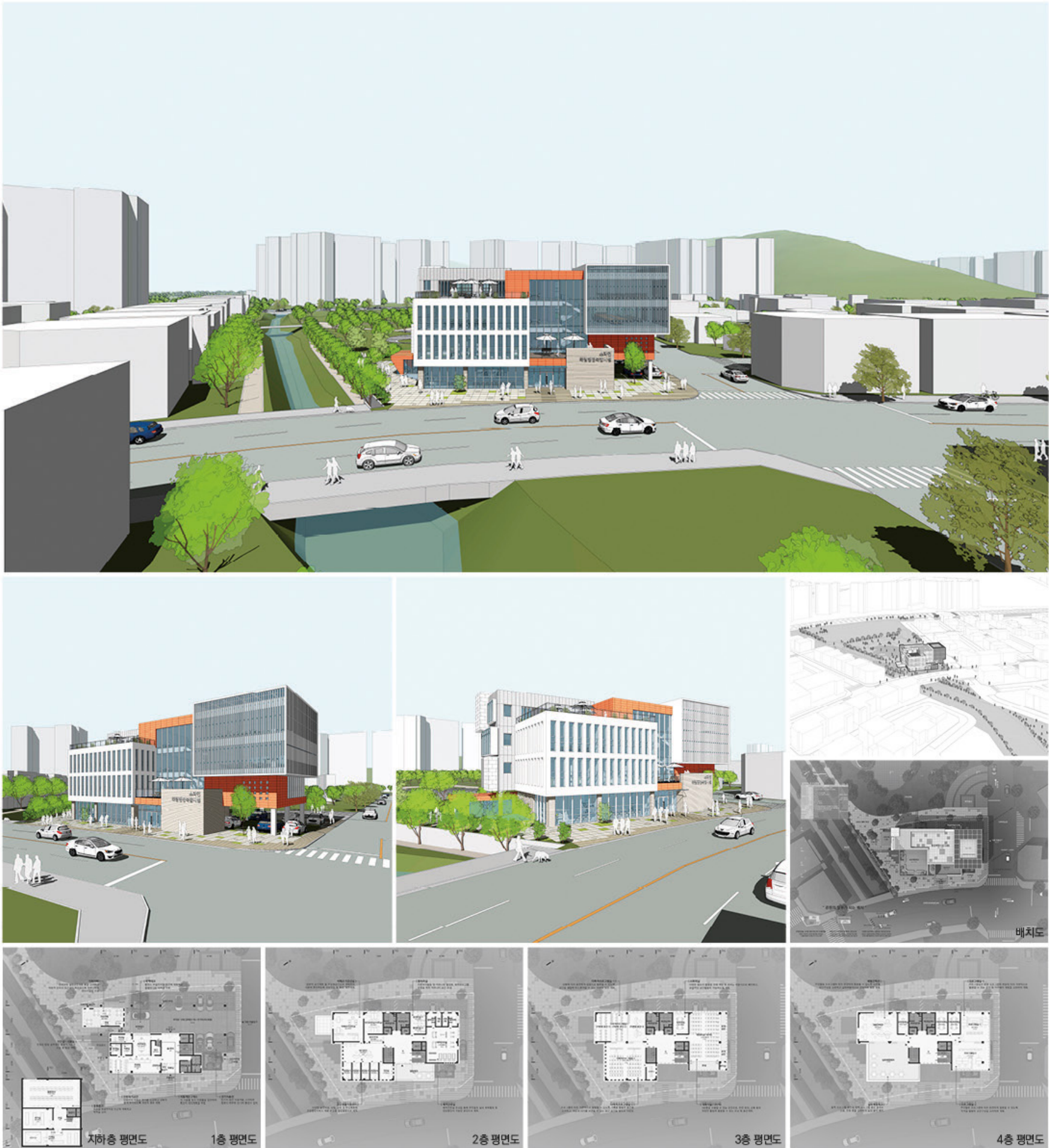
심사위원 : 이재홍(순천대), 안길전(일우건축), 한형민(예향건축), 이종호(성진건축), 김준택(전남대), 송정석(동강대), 오조용(서영건축)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70번지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마 감 : 박판세라믹판넬, 알루미늄루버, 치장벽돌쌓기, 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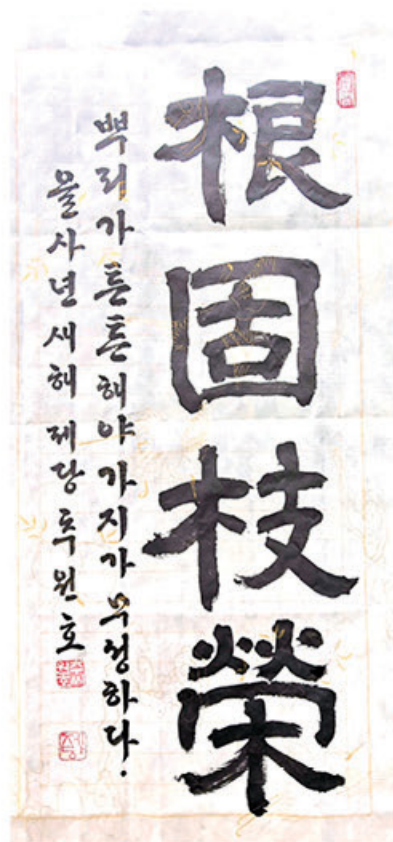
- 대지면적 : 1,036㎡
- 건축면적 : 584.83㎡
- 연 면 적 : 1,908.97㎡
- 건 폐 율 : 56.45%
- 용 적 륜 : 158.45%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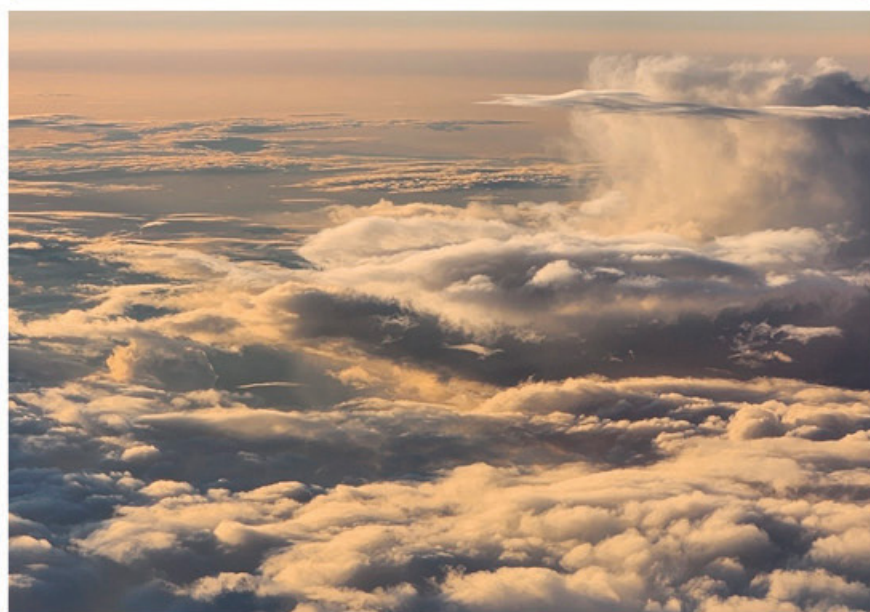
오금열 건축사 / (주)디자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신년휘호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한 장의 사진 _ 정범수 건축사 作 / 전북



노을빛 구름위 내리는 비

2024년 9월 7일 여객기에서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서울은 건축

신호근 / 효형출판 / 2024. 03. 30.



'서울은 건축'이라는 책은 서울의 사계를 오롯이 담아낸 '좋은 경험을 주는 공간'을 만나 볼 수 있는 책이다. 서울의 중심으로 꼽히는 강남대로를 머릿 속에 그려보자. 건물들은 진열장의 보석처럼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준다. 그렇지만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니다. 그저 눈요기만으로, 강남대로를 아름답다고 표현하기 어렵다. 작가는 이러한 서울을 중심으로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이 어우러진 아름다움 기 신사옥·데우스 삼청·스타벅스 경동1960 등을 소개한다. 이 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차산 숲속 도서관·불암산 엘리베이터 전망대 등 서울이 지닌 자연 풍광과 조화를 이룬 건축공간을 소개한다. 저자가 말하는 '좋은 경험을 주는 공간'이란, 단순히 외형적으로 아름답거나 기능적인 공간을 넘어,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물리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얻는 감동도 다르다. 이 책에 담긴 41곳의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공건축물 위주다. 저자는 공간 선택의 기준을 자리한 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건축물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새로운 도시 축으로 떠오르는 마곡지구와 용산역 일대, 젊음과 창조성이 가득한 성수동, 한국 전쟁의 상흔이 남은 수락산자락, 채석장의 아픈 역사를 지닌 동대문구 창신동 일대 등을 새롭게 해석하며, 만나는 공간마다 건축물에 새겨진 서울 구석구석의 서사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의 매력은 계절별로 공간을 분류했다는 것이다. 각 계절이 지닌 의미와 공간을 연결한 저자의 의도가 오롯이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를테면,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봄은 '시작', '치유', '아름다움' 등으로 다시 세분화했다. 여기서 저자는 건축의 생성과 자연의 생장이 다름을 말하며, 자연과 건축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사유를 제시한다. 건축공간과 계절감을 담아낸 키워드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이를 논리정연하게 연결해 내는 글을 읽는 재미를 준다.

이 책은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건축적 관점에서 서울을 탐험하고, 도시의 다양한 공간들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 공간들이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서울이 지닌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새삼 환기시키며, 우리 도시를 여행하는 산책자를 위한 현대 건축 안내서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도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놓치기 쉬운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공간들을 소개하고, 각 공간이 주는 감동을 탐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계절에 따른 공간의 변화와 그에 맞는 건축적 특성을 알아가는 과정은 여행을 통해 도시를 경험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다.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